

Global Strategy Report

신(新)보호주의 국제환경과 러시아 수입대체화 전략



순 서

I. 연구 배경 및 목적 1

1. 연구 배경 / 1
2. 연구 목적과 추진방향 / 3

II. 신보호주의 국제환경과 러시아 4

1. 글로벌 탈세계화와 신고립주의 부상 / 4
2. 자국시장 보호정책의 작용 메커니즘과 유형 / 11

III. 러시아 수입대체화 전략 15

1. 수입대체화 전략 추진배경 / 15
2. 수입대체화 전략 추진내용 / 22

IV. 기업 대응방안 29

참고문헌 / 35

	요 약	
□ 글로벌 신(新)보호주의 부상과 러시아		
○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퇴조와 무역규제 강화 * 보조금 지급, 규제금융 등을 통한 차별적 통상정책 이행건수가 증가추세이며 러시아의 통상왜곡 조치가 가장 많음(2015년) ○ 주요 국가들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강화 -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(Brexit)로 유럽연합의 추동력 상실 및 미국 대선 후보들의 시장보호정책 추진 * 상품무역규모 1위를 차지하는 중국도 주요 산업육성으로 해외의존도 감소 추진 * 보호주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중 하나로, 현지화 관련 규제는 수입제한과 연계된 직접적 정책		
□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화(import-substitution) 전략 추진		
○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전략 추진 배경으로는 ①서구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작용, ②러시아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, ③정부 산업화 정책의 연장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* 2014년 중순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심화 * 정부는 자원의존도 감소를 위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입대체화와 상승효과 기대 ○ 2014년 9월 20개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▲제약, ▲무선전자, ▲항공, ▲의료, ▲조선 등이 핵심산업 * 육성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금융제공과 현지화(localization) 규정 마련으로 자국 내 생산유도		
□ 러시아 수입대체화에 대한 대응방안		
○ 산업별 수입대체화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식품가공, 경공업 등에서는 빠른 대체화가, 의료, 기계제작, IT 분야에서는 느린 대체화 진행 - 빠른 산업대체화가 일어나는 산업은 러시아내 경쟁사 분석, 느린 대체화 산업에서는 단계적 현지화전략이 필요 * 현지화 1단계로 수입규제회피를 위한 생산의 현지화, 2단계로는 시장안정을 위한 운영의 현지화, 3단계는 지속발전을 위한 제품의 현지화를 추진하며 EEU 출범에 따른 러시아 중심 허브전략 유효		

I

연구 배경 및 목적

1

연구 배경

□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

- 2014년 7월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화를 본격적으로 천명하면서 외국 산 제품을 대체하여 자국산 상품사용을 확대하는 정책 발표
 - 초기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구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반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구체화 되고 강화되는 추세
 -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 정부가 수입대체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표명
 - * 소비에트 해체이후 CIS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탄은 ‘수입대체산업화(공업화)’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보호주의적 자세 견지
- 글로벌 경제에서 러시아의 지위와 규모를 감안할 때 엄격한 수입대체화 정책의 지속적인 적용은 어려우나 장기간의 정책실행으로 인해 자국 내 특정산업에 걸쳐 영향
 -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격을 상실당하기는 하였으나 러시아는 G-8에 포함되는 강대국이자 무역규모로 볼 때 경제대국
 - 2014년 기준 수출금액은 약 4,980억 달러(USD)로 세계 11위, 수입은 약 3,080억 달러로 세계 17위에 해당하는¹⁾ 무역대국으로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정책추진은 글로벌 경제와 자국 산업에 영향

1) WTO, World Trade Report 2015, p. 26.

□ 최근 글로벌 경제의 자국시장 보호 강화 및 탈 세계화 경향 대두

○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국의 자국시장 보호강화 정책

- 2016년 6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유럽연합(EU) 회원탈퇴 결정이 있는 후 탈 세계화 현상이 부각

*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(Brexit)은 유럽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던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정책에 반(反)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탈퇴과정은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체제와 시스템에 역행

-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,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(Donald Trump)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가 하면, 클린턴(Hillary Clinton) 민주당 후보 역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추진의지를 밝히는 등 고립주의 강화 예상

-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G2 국가인 중국의 경우 주요 산업 육성 및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보호정책 강화

* 중국은 자국 전자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급수준이 약 20%에 불과해 연간 반도체 수입액이 1,000억 달러를 넘자 2015년까지 1조위안을 투자해 반도체 자급률을 70%까지 올리기 위한 정책 추진

○ 글로벌 신(新)고립주의 경향의 등장은 세계화의 대안으로서 지역 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‘신(新)지역주의’ 등장과 러시아의 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예상

- 글로벌 자유무역의 기조가 퇴색하고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국가들과의 지역적인 연대가 강화될 경우 EEU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지역 내 입지 강화 예상

- 지역주의가 강화된다면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은 외부의 압력 없이 지속적인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글로벌한 관점에서 타 국가와의 경제·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

- 자국시장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현황을 이해
 - 최근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국시장 보호주의 강화의 현황과 배경을 이해
 - 글로벌한 관점에서 러시아 수입대체화 정책의 의미와 신고립주의 시장보호정책의 작용 및 영향 등을 분석
 -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과 정책을 분석
 -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추진의 시발점은 서구 국가들의 對 러시아 경제제재에서 시작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의 내용들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자본유출 방지의 목적도 포함
 - 근본적인 요인으로 러시아 정부 산업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수입대체화를 통한 외국산 완제품의 수입회피 정책의 의도를 분석
 - 러시아는 2014년 9월에 처음으로 수입대체화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각 정책의 개념과 의미,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필요
- 수입대체화로 인한 러시아 시장의 장기적인 영향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우리기업의 대처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
 - 수입대체화 정책의 장기화에 따라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과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목적

II

신보호주의 국제환경과 러시아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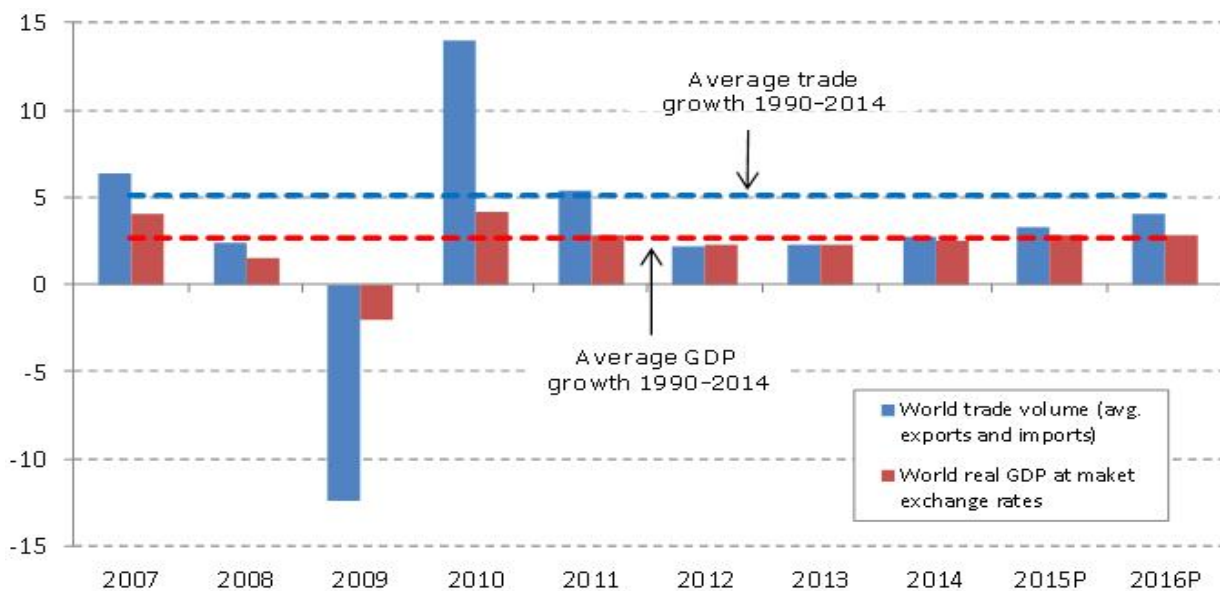
글로벌 탈세계화와 신고립주의 부상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퇴조 현상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경기는 급격한 침체를 겪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부상
- 1980년대 중반이후 세계화를 통해 교역이 확장되면서 ‘2대1의 법칙’*이 정설로 굳어졌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교역이 줄면서 공식이 무너졌음.

* 매년 세계 무역 증가율이 세계 경제성장률의 두 배 가량 되는 현상

< 그림 1 > 세계 무역 및 GDP 성장률 비교: 2007-2016년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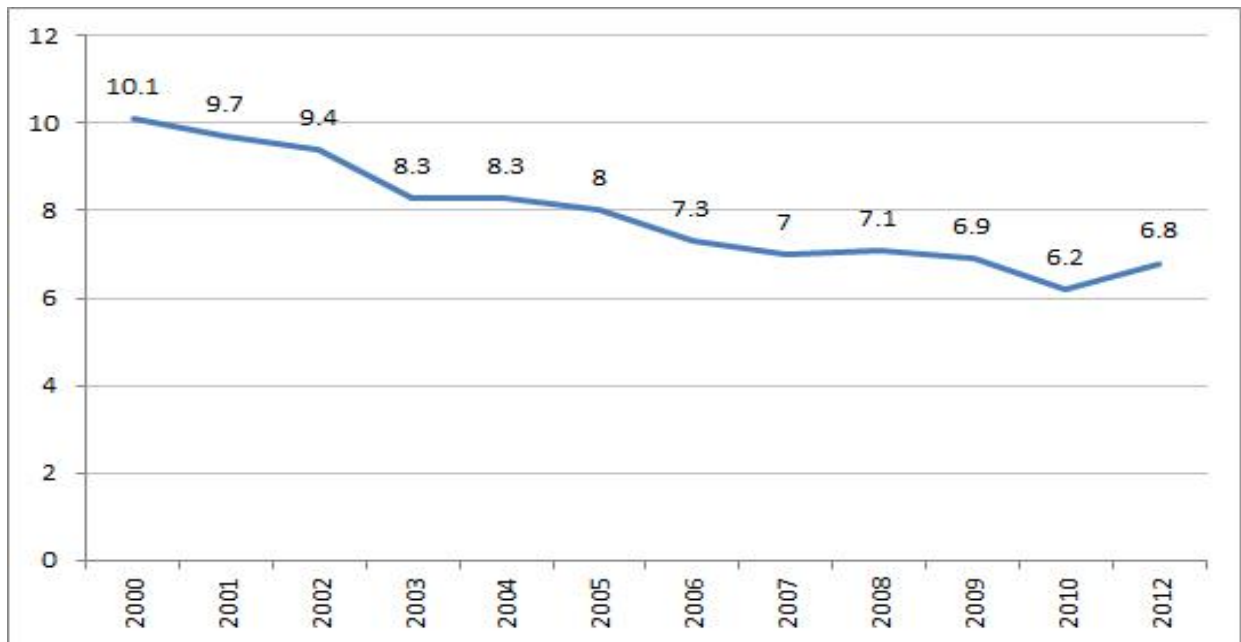
* 주: 2015-2016년은 예측치임.

* 자료: WTO press release, PRESS/739, Apr. 2015.

- 상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, 2010년 이후 세계무역 증가율이 크게 줄면서 세계 평균 GDP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- 2016년 세계무역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장기간 하락기조로 인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 부각으로 무역 성장세 감소
-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안가운데 하나는 수입관세율을 올리는 것이며 세계평균 관세율은 2010년 저점을 기록한 뒤, 2012년 상승추세

< 그림 2 > 세계 평균 관세율 변화: 2000-2012년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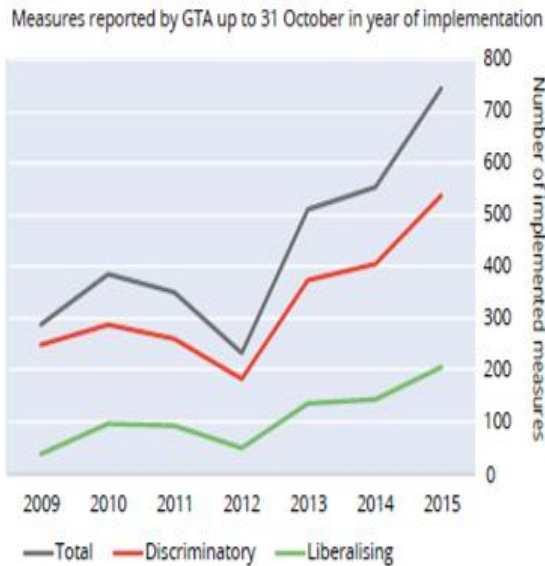
* 주: 2016년 발표 자료이며 2011년은 데이터 부재

* 자료: The World Bank, Tariff rate, applied, simple mean, all products(%).

- 세계 평균 관세율은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였으며 2010년 6.2%까지 하락하면서 저점을 기록
- 하지만 2012년에는 6.8%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관세율 인상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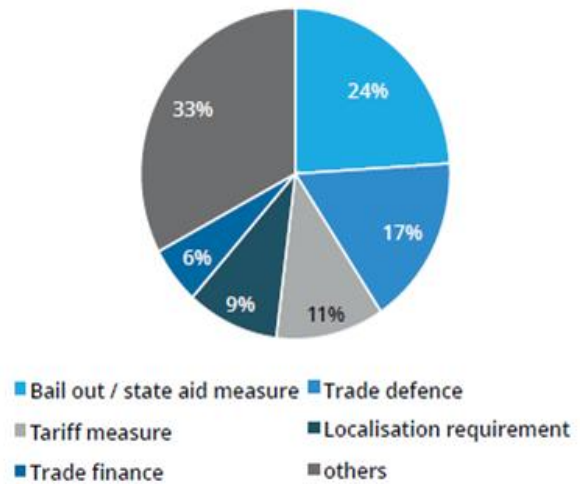
- 세계적으로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호주의를 강화

< 그림 3 > 무역관련 조치 수



< 그림 4 > 주요 통상왜곡 조치 비중

Bailouts and subsidies account for a quarter of trade distortions this year



* 자료: Simon J. Evenett and Johanness Fritz, “The Tide Turns? Trade, Protectionism, and Slowing Global Growth,” The 18th Global Trade Alert Report, CEPR Press, 2015, p. 18.

- 전 세계적으로 차별적인 통상정책 이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10월까지의 이행 건수는 539 건으로 2012년의 200건 미만에 비해 대폭 확대(<그림 3>의 중앙선)
- * 전체 539개 이행 건수에서 G-20에 속한 국가들이 행한 건수는 443 건으로 대부분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주요 선진국에 의해 시행
- 통상왜곡 조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구제금융이나 금융 지원 등 정부의 자국기업에 대한 보조적인 정책사용이 24%로 가장 높았으며 무역규제조치(17%), 관세조치(11%), 현지화 의무규정(9%) 등이 주요 통상왜곡 조치로 나타남.
- 2015년 통상왜곡 조치의 특징은 전년도에 비해 구제금융이나 보조금

지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며 반면 관세인상을 통한 시장보호 정책 사용은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- 주요 통상왜곡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대부분 G-20 국가들로 그 중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은 불공정 조치를 취한 국가로 나타남.

< 표 1 > 통상왜곡 조치 시행국가순위

순위	국가	조치 수	세계수입 비중('14,%)
1	러시아	65	1.6
2	인도	55	2.6
3	미국	51	13.4
4	인도네시아	39	1.0
5	브라질	38	1.3
6	일본	36	4.7
7	영국	26	4.0
8	캐나다	24	2.6
9	터키	24	1.4
10	프랑스	23	3.8
	기타 국가	631	53.1

< 표 2 > 주요 통상왜곡 조치 부문

순위	부문	조치 수	세계무역 비중('14, %)
1	기초 금속	84	5.36
2	농산물	76	2.20
3	교통 장비	76	7.53
4	특수 기계	68	5.32
5	기초 화학제품	66	5.31
6	밀제품, 전분	56	1.51
7	전자기계, 장비	52	6.29
8	기타 화학제품	50	4.97
9	가공 금속제품	49	1.42
10	일반 기계	48	4.87
	기타 부문	679	55.22

* 자료: Simon J. Evenett and Johanness Fritz, *op. cit.*, p. 19.

- 2015년 러시아는 총 65건의 통상왜곡 조치를 내려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, 미국, 인도네시아 등이 많은 통상왜곡 조치를 시행

* 같은 자료에 따르면,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누적으로 통상왜곡 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한 국가는 504건의 인도였으며 그 뒤를 이어 478건의 러시아가 2위를 차지했음.

- 부문별로는 기초 금속 부문에서의 왜곡 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, 최근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어 농산물, 교통 장비 부문에서 제재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* 철강부문은 최근 중국기업들의 생산과다로 인해 국제 공급과잉 우려 및 철강가격하락, 반덤핑 제소 등 많은 이슈발생

□ 최근 주요국의 자국시장 보호 이슈

- 영국의 유럽연합(EU) 탈퇴(Brexit) 결정에 따라 영국은 경제연합체 중심의 공동시장 발전에서 벗어난 경로를 선택했으며 자국시장 보호성향 대두
 - 2016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탈퇴 수순을 진행 중
 -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의 무역적자 지속, 영국으로의 이주민 증가로 인한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 등이 주요 원인
 - *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의 무역적자는 2016년 1~4월간 380억 유로에 달해²⁾ 총 28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였음.
 - Brexit 이후 유럽연합 내에서 추가 탈퇴 회원국 거론 및 경제연합의 추동력이 상실되면서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
- 미국의 대선 유력 후보들이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보호정책 대두 가능성 확대
 -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로 국제무역기구(WTO)나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자유무역을 전파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대선경쟁에서 보호주의 경향 부각
 -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(Donald Trump)는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, 한미 FTA 등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입장 견지

2) Eurostat, news release euro indicators 116/2016, June, 2016.

* 그는 지난 4월 있었던 외교정책 연설에서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다며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

- 클린턴(Hillary Clinton)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 대한 재협상 논의 필요성을 밝히는 등 기존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

-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,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초반에는 기존 정책의 일부 수정 또는 시장보호적인 정책 기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.

* 양 당은 모두 새로운 정강정책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정책변화 가능성 증가

○ 중국은 상품 무역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대국이나 주요 산업에서 ‘굴기(崛起)*’를 추진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의지 표명

* ‘우뚝 서다’를 의미하는 한자어로 해당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상징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

- 중국은 자국 전자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급수준이 약 20%에 불과해 연간 반도체 수입액이 1,000억 달러를 넘자 2020년까지 1조 위안을 투자해 반도체 자급률을 70%까지 올리기 위한 정책추진

- 중국의 주요 가전업체중 하나인 ‘하이얼(Haier)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(GE)社의 가전부문을 인수

- 각종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도 기업들이 각종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등 산업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장을 보호하려는 정부의도 투영

- 중국정부는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우회적으로 자국시장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전개

《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례 》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 국은 경기부양과 자국시장 보호를 이유로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조치 시행
 - 당시 보호무역 조치는 신흥국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는 등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도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
 - 당시 신흥국의 경우, 수입관세 인상이나 수입규제 등 비교적 전통적인 형태의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한 반면, 선진국은 WTO 규범 위배판단이 어려운 경기부양책, 구제금융 지원 등의 형태로 보호무역주의 시현³⁾
-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놓인 자국 산업 지원과 구제가 주요 목적이었으며 이후 기업금융지원이 주요 보호주의 정책으로 등장
 - 미국은 파산직전인 크라이슬러와 GM 등 자동차 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 재정지원 형태의 보호주의 추진
 - * 또한 미국은 정부지원 공공사업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사용을 규정하는 법안(Buy American)을 2009년 발효하여 자국시장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
 - EU도 항공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구제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낙농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
 - 러시아는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지원과 동시에 자동차와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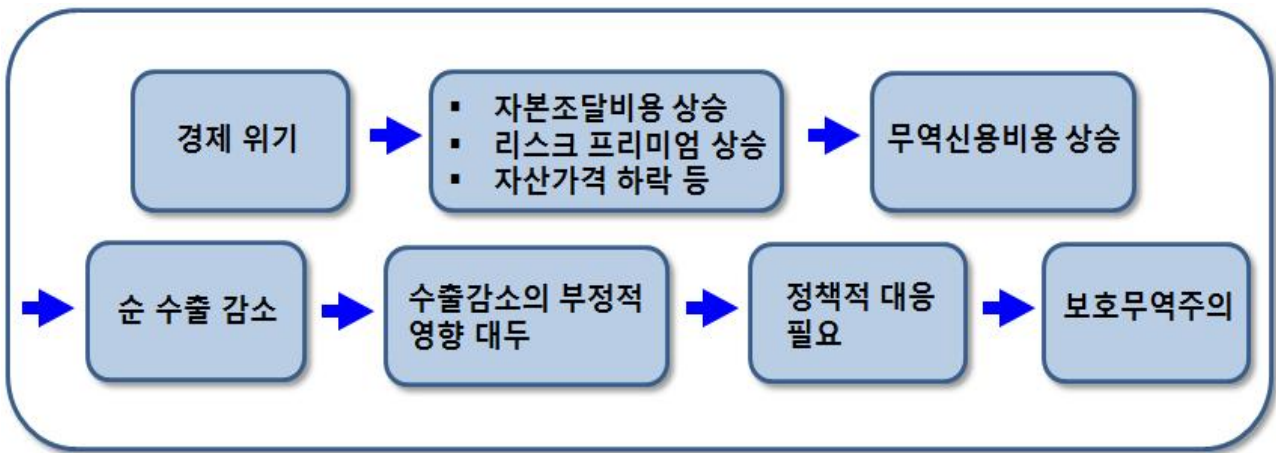
3) 신현수 외, 『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환경 변화와 수출확대 방안』,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-568, 2010, pp. 157-159.

□ 자국시장 보호정책의 작용 매커니즘

- 정부의 자국시장 보호정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분 가능
- 정치적 요인가운데 한 가지는 ‘중위투표자(Median voter)’ 요인으로 다수결 원칙에 근간을 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치인은 대체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다수의 노동자의 표를 의식하게 됨.⁴⁾
- 또 다른 요인은 ‘현상유지 성향(The status quo bias)’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을 잃지 않는 것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보다 더 중요
 - *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도록 압박
- ‘지대추구(Rent seeking)’는 국가 내의 특정 이익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 혹은 독점하고자 로비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이나 무역에 정부의 개입을 유도하는 현상
- 한 국가의 경제위기 시기는 정부 입장에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가장 적합한 때로 경제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사례
- 경제위기로 자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대외무역이 부진하면 정부는 쉽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보호무역주의를 선택

4) William H. Kaempfer, Edward Tower, and Thomas D. Willet, “Trade Protectionism: For the Encyclopedia of Public Choice,” Working Paper 02-20, Duke University, June, 2002. pp. 6-7.

< 그림 5 > 경제위기발 보호무역주의 작용 원리



* 자료: Warwick J. McKibbin and Andrew Stoeckel, “The Potential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World Trade,” Brookings Institute, August, 2009. p. 4에서 저자 수정

-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내경기가 악화되거나 수출이 부진하는 등의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**정치적인 압력**이 가중될 경우 정부의 대응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진 가능성 확대
-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시화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시장보호·산업육성을 위한 노력확대
-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고 자본의 제약 없는 이동 및 투기적 행태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**상시화** 되었으며 타국으로 쉽게 전이
- 레인하트(Carmen M. Reinhart)와 로고프(Kenneth S. Rogoff)는 국제자본이동(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)의 확대가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논증⁵⁾
- 금융위기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**제조업 위주의 안정적인 경제구조 구축**이 주요국가의 과제가 되면서 각

5) Carmen M. Reinhart and Kenneth S. Rogoff, “This Time is Different: A Panoramic View of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Crises,” NBER Working Paper 13882, March, 2008, p. 7.

국은 자국 시장 보호와 제조업 육성 정책 확대

- 시장보호주의 정책의 주체로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개입방법이 정책실현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
-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중심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
- 각 국 정부는 금융 시장개방을 통한 산업 발전보다는 정부주도의 제조업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산업육성에 대한 개입 확대
- *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개방도가 큰 국가보다 독일과 같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경제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제조업 발전의 중요성 부각

□ 보호무역주의의 유형

- 보호무역주의의 형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는 기업보조금 지급 및 구제금융 제공 형태의 정책이 성행

< 표 3 > 보호무역주의의 유형 구분

수입제한조치 (직접적 정책)	1. 관세 및 수입규제: 관세, 쿼터 제한, 수입금지,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
	2. 무역규제조치
	3. 비관세 장벽: 라이선스, 위생규제, 기타 비관세 장벽
	4. 차별적 구매: 현지화 비중, 공공구매 차별, 소비 보조금 지급
간접적 정책	1. 구제금융 제공(bailout)
	2.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
	3.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

* 자료: Christian Hann and Brad McDonald, "Protectionist Response to the Crisis: Damage Observed in Product-Level Trade," IMF Working Paper WP/11/139, June, 2011, p. 23.

- 국제금융기구(IMF)가 규정한 수입제한 조치로는 관세, 쿼터 제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입제한 조치와 간접적인 정책으로 유형구분
- 수입제한 조치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관세 및 수입규제, 무역규제조치, 비관세장벽 등이 포함되며 현지화(localization) 비중 제한조치를 통한 수입억제, 공공구매시 차별,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도 포함
 - * 경쟁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 정책도입은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효과를 단기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조치
- 간접적 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자국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, 기업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
 - * 간접적 보호무역주의 유형은 수입제품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우나 기업경쟁력 개선을 통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국제금융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유형가운데 간접적인 정책이 제품 차원에서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
-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직접적인 수입제한 조치에 의한 무역 감소는 ▲5%, 간접적인 정책에 의한 무역 감소는 ▲7%로 나타나 간접적인 정책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음.
- 직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는 전통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수단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정책 활용을 통한 비전통적 수입규제가 확대되는 양상

*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, 직·간접적인 방어의 구현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시장을 보호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글로벌한 관점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주의와 맥을 같이함.

Ⅲ

러시아 수입대체화 전략

1

수입대체화 전략 추진배경

- *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전략은 다양한 정치·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다음의 3가지 요소들이 주요 배경

□ 서구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반작용

- 미국과 EU는 크림반도 사태를 빌미로 對러시아 경제제재를 발효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
 - 2013년 말경,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 가입이 확정적이던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사태를 통해 친러파 야누코비치(Viktor Yanukovich)대통령을 축출하며 임시정부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친러파 세력 등장
 - * 당시 우크라이나는 EU의 동방파트너십(Eastern Partnership) 불참이 사실상 확실시 되었으나 친서구파의 정권전복으로 정국불안 자초 및 정책급선회
 -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유혈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서구와의 대립을 구실로 EU를 중심으로 2014년 對러시아 경제제재 발효
- EU는 러시아에 대해 단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
 - EU의 1단계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합병을 근거로 2014년 3월 18일 발효되었는데, ▲러시아 주요 인사의 EU내 자산에 대한 동결 및 입국금지 조치 시행
 - * 주요 인사에는 132명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기업가 및 정치인 포함
 - EU의 2단계 경제제재는 2014년 6월 23일 발효되었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합병을 빌미로 삼으며 ▲크림과 세바스토폴 제품의 EU시장 수입금지 및 기술·재정지원 금지

- 3단계 경제제재는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의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격을 구실로 2014년 7월 17일 내려졌으며 ▲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, 주요 군수장비 수출금지, 에너지 장비와 기술의 수출통제 등이 포함
- EU의 초기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러시아 기업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
-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2014년 9월과 12월에 EU와 유사한 경제제재안을 발효
 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그들이 소유한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
 - * 주요 동결기업으로는 푸틴 대통령 측근 소유의 ‘볼가 그룹(Volga Group)’, ‘러시아 은행(Bank Russia)’ 등이 있음.
 - 주요 러시아 기업과의 금융거래 금지 및 군수장비, 원유채굴 장비와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세계은행(World Bank)과 유럽부흥은행(EBRD)의 러시아내 신규 프로젝트 제한 주도
 - * 미국의 주도하에 호주, 캐나다, 일본, 노르웨이, 스위스 등이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
-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러시아는 서구 제품 수입금지 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조치 시행

< 표 4 > 러시아 정부발표 외국산 제품 정부조달 참여제한 조치: 2014-2015년

발표일	내용	발표부서
2014.7	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	산업통상부
2014.8	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	산업통상부
2015.1	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제한	산업통상부
2015.2	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	산업통상부
2015.2	소프트웨어 제한법령 초안 검토 발표	정보통신부

* 자료: KOTRA, Global Window

< 표 5 > 제재 산업별 세부분야

품목	분류	총 제재대상 (종)
엔지니어링	EEU 역외생산: 건설용 차량 및 부품, 특수차량, 노면전차, 버스	42
	EEU 내 생산: 승용차, 건설용 차량, 특수차량	12
경공업	섬유류, 의류, 신발류, 기타 가방 및 모피·가죽	19
의료용품	의료용 직물, 의료 장비, 진단용 키트, 기타 기자재	45
소프트웨어	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	16

* 자료: 정부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정리

- 2014년 7월부터 엔지니어링, 경공업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외
국산 제품의 공공입찰 참여제한 조치 발표
- 러시아는 서방에 제재에 맞서 경제제재 참여국산 농산물 및 식료
품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수입금지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
산 확대 기대

□ 러시아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

- 국제유가 하락 및 서구의 경제제재 여파로 러시아 경기침체의 지
속 및 금융시장 불안 가속화
- 2014년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러시아 경기는
하강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, 2014년 GDP 성장률은
0.6%, 2015년 -3.8%(IMF)에 그침.
- 국제원유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2014년 3/4분기 이후 루블화 평가절
하가 계속되었으나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외부여건에 따라 금
융시장 불안정 지속

< 표 6 >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 변동 추이

(단위: 루블)

구분	2014년		2015년				2016년	
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달러화 대비 루블화	36.2	46.9	62.2	52.6	62.9	65.9	74.6	65.9

* 주 : 해당 분기 평균 환율

* 자료 : Central Bank of Russia

-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2014년 12월부터 소비자 물가(CPI)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연중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시현
 - * 다만, 물가상승률은 2016년 들어 전년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식료품 가격은 3월과 4월 각각 4.7%, 4.9%로 안정되는 양상
-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해외로의 자본유출(capital outflow) 가속화와 외환보유고 및 준비기금(reserve fund) 감소우려
 -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대부분이 원자재 관련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이며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비중이 높아 대외 경기에 취약한 구조
 - * 경기불황 이후 약 1년간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약 1,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
 - 러시아는 유가하락에 대비한 국부펀드의 일종인 준비기금에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있어 동기금 감소 추세
- 경기침체에 따른 러시아로부터의 자본유출과 환율불안 요인 해소 방안으로서의 수입대체화 정책
 -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안정을 위해 수입대체화를 통해 자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최소화 필요

- 특히 러시아 시장은 자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금융위기 시에도 자본유출로 환율불안이 크게 나타난 경우가 있어 정부는 자본유출에 민감
- 러시아는 소비재의 상당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수입대체화를 통한 외화유출 최소화 효과 기대
 - *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, 전자제품, 자동차 등이며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에서 상기 제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여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목표

□ 러시아 산업화 정책추진의 연장선

-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의 일부로서 수입대체화 추진으로 산업화의 가속도를 더해 정부 추진목표의 달성 및 궁극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자원의존도 경감목적
- 자원의존 비중이 큰 러시아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주도의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푸틴 3기정권 출범이후 본격화
- 주요 산업화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부 산업의 발전정책을 2013년 1월까지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추진
- 러시아는 원유·가스 등의 원자재 수출이 러시아 전체 수출의 2/3 이상을 차지하며 GDP에서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
 - * 한 국가의 GDP에서 자원관련 부분의 비중이 10% 이상, 수출에서 원자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% 이상일 때 자원 의존형 국가로 규정 가능 (Gobind Nankani)
- 러시아는 수출에서 자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3.8%에서 2013년 71.6%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70.5%를 기록하는 등 전형적인 자원의존형 국가

< 표 7 > 러시아 정부의 산업발전 주요 프로그램별 목표

프로그램 명칭	지표	2012년 현재	2020년 목표
경제발전 및 혁신경제 프로그램	총 고용인구 중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기업의 고용자 평균 수 비중(%)	25	29.3
	세계은행 Doing Business 순위	120	20
	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수준(%)	70	90
	전체 업체 수에서 기술혁신을 실행하는 업체 수 비중(%)	9.1	25
	통합 부처간 정보-통계 시스템 데이터, 지표의 적시 공 표 비중 (%)	70	95
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	2011년(100) 대비 산업생산지수	105.1	134.6
	산업생산 규모에서 기술혁신에 지출 비중(%)	2	2.5
	전체 산업생산 업체에서 기술, 조직, 마케팅 혁신을 실행하는 업체 비중(%)	24	60
	첨단기술 제품 수출 비중(%)	0.4	2
	국가 표준과 국제표준간의 조화 수준(%)	46	56.5
2013-2020 제약 및 의료산업발전 프로그램	의약품 수출(10억 루블)	17	105
	제약 및 의료 산업에서 기술혁신 실행 기업 수 비중(전 체 생산업체 중, %)	26	50
	의약품 생산의 R&D, 기술 혁신에 투자 규모(10억 루블)	8	120.4
	기술 상용화를 통한 국내 의약품 생산 규모(10억 루블)	0	361.3
	전략적으로 중요한, 생활필수 의약품 목록에서 국내 생산 의약품 비중(%)	63	90
2013-2020 농업발전 및 농산물시장 규제	농업 생산성지수(전년대비, %)	-4.8	2.1
	농업 고정자본투자 규모 지수(전년대비, %)	2.2	5.1
	농업업체 수익율(보조금 포함)(%)	12	15
	농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(루블)	14,935	25,500
	노동생산성(전년대비, %)	-	4

* 자료: 한홍렬 외, 유라시아 산업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15)

- 국내총생산에서 자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0.7%, 2012년 11.2%, 2014년 10.3%, 2015년 상반기 11.5%로 10% 이상을 꾸준히 상회(Росстат)
- 역대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산업화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대체화 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강도 높은 정책의 일환
- 러시아 정부는 체제전환이후 자국의 자원의존 경제구조를 산업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으나 2000년대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자원의존현상은 더욱 심화
- 기존 정부의 규제정책은 외국산 완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, 비관세장벽 강화 등의 정책에 머물렀으나 급변 경제위기를 계기로 ‘수입대체화(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)’ 라는 정책을 전면에 부각
- 수입대체화 정책을 통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자국제품 사용으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기마련 의도
 - * 다만, 외국산 제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품과 산업에서 일정수준까지 대체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둔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
- 수입대체화 전략을 통해서 보호받는 산업은 동일 산업 내에서 해외 요인으로부터의 위협이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, 대외수출 등에 대한 요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추진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가시적으로 빠른 산업화 달성가능⁶⁾
-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급변 수입대체화 정책과 자국의 산업화 정책을 동일 선상에서 추진하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산업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

6) 박지원, “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: 자동차 산업의 사례분석,” 『중소연구』, 제 37권 제 4호, 2014, pp. 295-296.

□ 주요 수입대체화 산업분야 선정과 추진

- 러시아 정부는 2014년 9월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와 프로젝트 선정
 - 총 20개 산업 2,255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었으며 러시아내 육성이 필요한 주요 산업과 프로젝트를 망라

< 표 8 > 러시아 수입대체산업화 육성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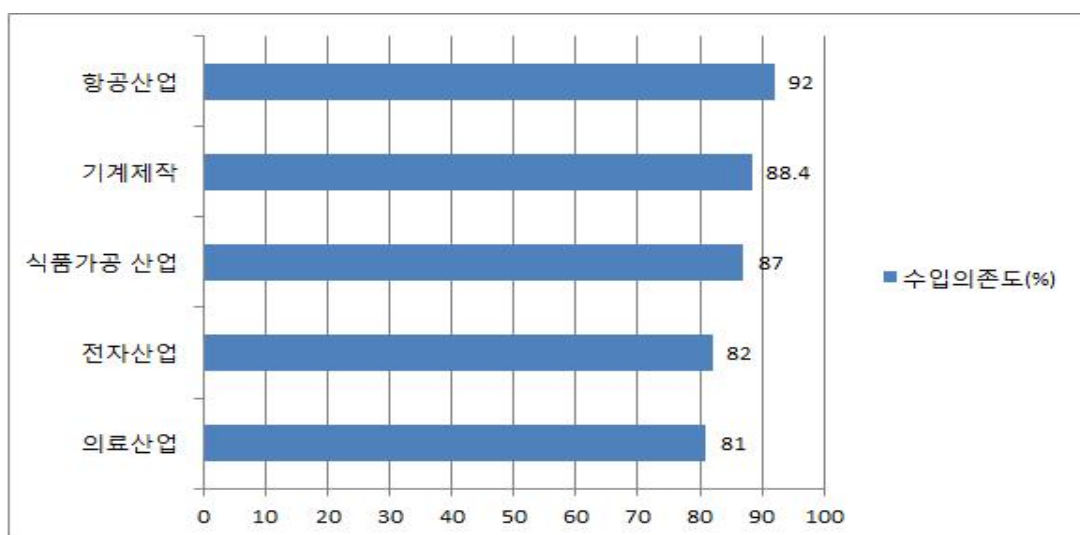
산업분야	프로젝트 수
경공업	31
항공산업	408
임업	34
화학산업	35
무선전자산업	534
운송기계제작	19
자동차산업	67
농업 및 임업 기계제작	51
식품기계제작 및 가공산업	15
도로건설 및 비행장 장비	15
철강제련	15
비철금속제련	14
제약산업	601
의료산업	111
중공업	47
에너지 기계제작, 전기 및 케이블 산업	45
석유가스 기계제작	43
공작기계제작	61
조선	107
일반 무기 산업	2

* 자료: 러시아 산업통상부, Доклад о целях и задачах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

- 총 20개 산업가운데 ▲제약, ▲무선전자, ▲항공, ▲의료, ▲조선 산업 등 5개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동 산업의 프로젝트 1,761개를 중점 프로젝트를 지정
 - * 상기 5개 산업의 프로젝트 수가 전체의 78.1% 차지
- 제약 산업은 가장 많은 총 601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데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는 러시아에서 일부 경미한 질병치료제를 제외하고 경쟁력 있는 신약을 제조할 만한 기술과 기업이 부재한 상황으로 정부의 산업육성의지가 가장 강한 분야 중 하나
- 무선전자 산업은 제약 산업에 이어 총 534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러시아는 기존에 지정된 경제특구(SEZ)와 연계하여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
 - *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가운데 상트 페테르부르크(St.Petersburg) 경제특구는 정보통신, 전자 산업에 특화된 경제특구
- 항공 산업에서는 총 408개의 프로젝트가 지정되었는데, 항공기 소재로 사용되는 티타늄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아비스마(VSMPO-Avisma)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중심의 프로젝트 추진
- 의료 산업 또한 중점적인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국제병원 설립 등 규제해소와 함께 의료기술 선진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높음.
- 조선 산업은 향후 러시아 내에서 드릴쉽, 특수선 등의 자국 내 수요가 높은 분야로 현재 러시아의 기술력으로는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산업육성 및 수입대체화 추진
 - *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극동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‘즈베즈다’ 조선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술이전 및 조선소 현대화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
- 수입대체화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2020년까지 일정수준이하 감소 목표

-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R&D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자금 및 생산 활동 금융에 대한 이자에 보조금을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70% 이내에서 지원하며 산업발전기금에서 투자금액의 최대 80%까지 금융지원 가능
- 푸틴 대통령은 2015년 6월 있었던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(St.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)에서 “우리는 수입 대체화 분야에 약 2조 5천억 루블을 지원할 것” 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실제 집행금액은 불명확함.⁷⁾
- 또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정책은 법인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, 이러한 지원은 실제로 기존에 지정된 경제특구 내에 투자 시 기업이 얻는 특혜와 동일
 - * 즉 제조업을 위한 투자가 경제특구 내에 이루어지도록 러시아 정부의 자연스러운 정책적 유도가 이루어지고 있음.
- 이러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70-90% 수준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는 산업을 2020년까지 50-60%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< 그림 6 >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업: 상위 5개 산업



7) Richard Connolly and Philip Hanson, “Import Substitution and Economic Sovereignty in Russia,”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Research Paper, June, 2016. p. 11.

* 자료: Import Substitution. State Support Measures, Foreign Trade Analytical Center

- 항공 산업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92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계제작, 식품가공 산업, 전자산업, 그리고 의료산업 등도 모두 수입의존도가 80%를 상회하여 높은 대외의존을 보이고 있음.
- 반면, 화학 산업, 비철금속, 에너지 기계제작 등의 분야는 수입의존도가 각각 9.7%, 10%, 19.7%에 그쳐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발전이 양호한 분야로 평가
- 화학, 비철금속, 에너지 기계제작 등의 산업은 러시아가 강점을 가진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산업분야로 해당 분야에서 산업의 수직계열화(vertical integration)가 일정 수준까지 이루어졌음을 의미
 - *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에 경쟁력을 갖지 못했던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나타냄.
- 러시아 정부는 2015년 5월 외국산 완제품의 수입억제와 자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 유도를 위해 ‘Made in Russia’의 기준을 설정
 -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시 ‘Made in Russia’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해외 완제품 수입을 최소화할 목적
 - 주요 산업별 현지화 요구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까지 높여야만 공공기관 입찰자격 요건 획득 및 정부 인센티브 획득이 가능
 - 2016년 기준 현지화 수준은 자동차(30%), 섬유산업(45%), 농기계(50%), 건설장비(50%) 등의 분야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20년까지 상기분야 모두 60%의 현지화를 달성한다는 계획
 - 정부의 현지화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생산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
 - * 체코 자동차 부품기업인 Brano Group은 650만 달러를 투자하여 니즈니 노

브고로드에 부품공장을 설립했으며 2016년 중반까지 철강원료를 100% 현지화하고 체코의 생산설비를 모두 러시아로 이전해 현지화 비율을 높일 계획

- 그러나 문제점은 현지화의 명확한 기준과 기업 기술개선의 제도적 지원 부재,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쟁이 부족하다는 점임.
- **현지화**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**기준이 불명확**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며 이러한 점이 불명확할 경우 제도를 악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기업의 **도덕적 해이 발생가능**
 - * 예를 들어 특정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, 즉 원재료 가공수준에 대한 국산화 인정여부 등이 불명확
- 수입대체화는 장기간의 기술이전(technology transfer)과 학습과정(learning process)이 필요한 정책으로 단기간의 규제정책으로는 실효적인 성과를 내기에 한계
- 러시아 정부가 주요 산업에 대해 2020년까지 대체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금융지원차원의 지원정책보다는 러시아 기업의 기술개선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이 부재
- 수입대체화를 통해 육성되는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 내에서의 경쟁이 필요하나 정부의 보호아래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움.

□ 유사 수입대체화(pseudo-import substitution)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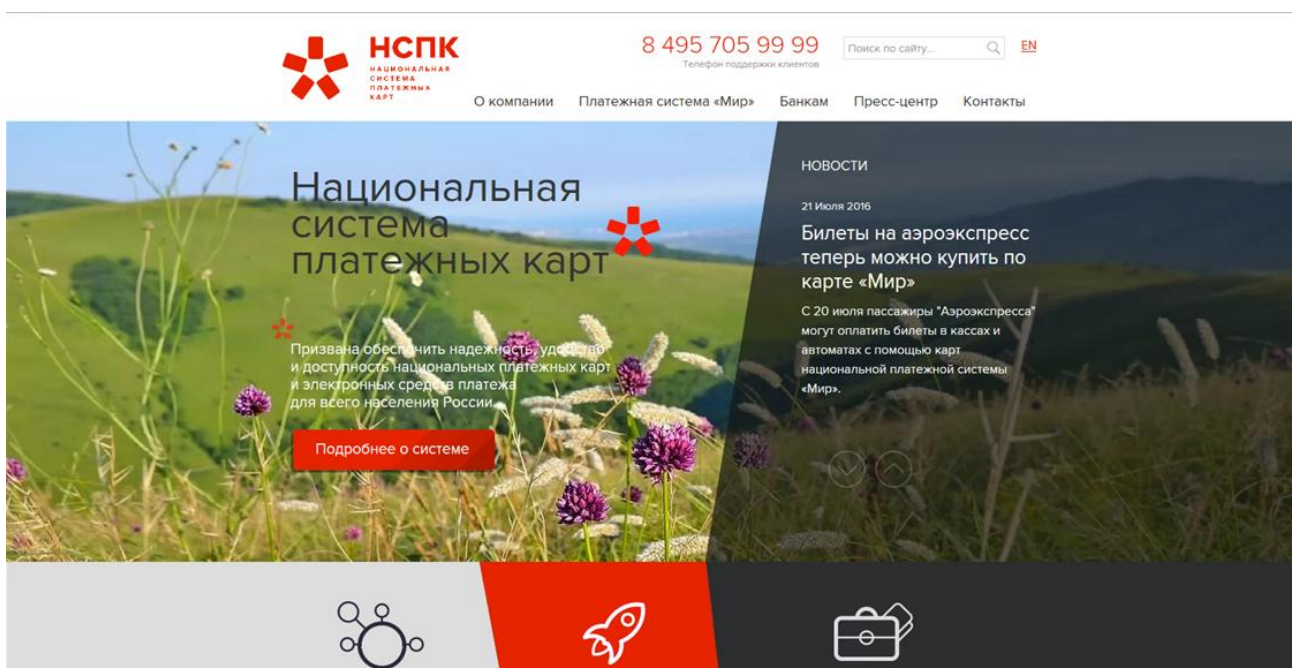
- **국가결제카드시스템(NSPK, National Payment Card System)**의 개발을 통한 외화유출 축소
- 2014년 서구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비자(Visa)와 마스터(Master)카드의 러시아 내 서비스를 일시 중지
- 2014년 7월부터 정부차원의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

행이 100%의 지분을 갖는 ‘JSC NSPK’ 社를 설립

* 동 기업은 러시아 연방법 161조의 ‘국가결제시스템의 발전방안과 국가결제 카드구축’에 근거를 두고 있음.

- 2015년 4월 1일부터 러시아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불 시스템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12월부터 기존 신용카드의 기능을 모두 갖춘 ‘미르(Mir)’ 라고 명명된 독자적인 카드 도입

< 그림 7 > 러시아 국가결제카드시스템의 홈페이지



- 국가결제카드시스템과 카드의 도입으로 러시아 내에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 사용보다는 동 카드의 이용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

* 카드가 도입된 이후 주요 유통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인터넷기업인 Ali Express가 시스템을 받아들인 이래 2016년 6월에는 맥도날드(McDonald)가 시스템 도입

- 소프트웨어·IT 분야에서 2015년 2월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령 추진

- IT·소프트웨어 분야는 현대 산업에서 제조업 못지않게 중요한 역

할을 하나 러시아 내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은 매우 미미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.

- 2015년 9월 1일 발효된 법안을 통해 기업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의 서버에만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**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**
- IT 분야에서 자국 산 사용 확대를 통해 외화유출 축소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동 산업의 특성상 인적자본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단시간 내의 성장 한계
- **여행·관광분야**는 정부가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해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분야가 아니라, 러시아의 **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정기간 수입대체화가 이루어진 분야**
 -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터키-시리아 국경에서 터키 공군에 의해 자국 전투기가 격추된 이후 터키를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하고 **터키행 항공노선을 중단**하여 사실상 터키관광 금지
 - * 2016년 6월 터키정부가 전투기 격추에 대한 사과의사를 전달한 이후 러시아 정부는 터키에 대한 여행제한을 해제할 의사 표명
 - 2015년 10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하여 러시아 정부는 **이집트 항공노선 중단**
 - 터키와 이집트는 러시아인들이 찾는 주요 해외 관광지 중의 하나로 러시아 정부의 이들 관광지에 대한 비행노선 운항금지로 국내 관광지가 대체여행지로 부상
 - 러시아 관광청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해외여행에서 지출한 금액은 2013년 약 560억 달러에서 2014년 500억 달러, 2015년 450억 달러로 감소된 반면, **국내여행 지출은 2015년 전년대비 31% 증가**
 - 또한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해, 러시아인들의 대외구매력이 약화된 것도 해외여행을 축소시킨 주요 원인

IV

기업 대응방안

□ 러시아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속도와 용이성에 따른 대응

- 수입대체화가 진행 중인 산업별로 대체화의 용이성 및 외부환경에 따라 진행속도가 상이하며 이에 따른 차별적 대응 필요
- 대체화가 비교적 용이한 식품가공, 경공업 등의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대체화 및 산업발전이 가능하나 고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산업분야는 점진적 대체화 진행

< 그림 8 > 러시아의 산업별 수입대체화 진행속도



- 의료·제약, 기계제작, IT·전자 등의 산업 분야는 러시아와 선진국의 기술격차가 많이 나는 분야로 단기간 내의 기술추격이 쉽지 않음.
- 식품가공이나 경공업 등의 산업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대체화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가능한 산업분야로 실제로 식품가공 분야에서 수입대체화가 빠르게 진행
- * 식품가공 분야의 경우 고급식품의 경우 서구와의 품질 경쟁력 차이가 상당 부분 존재하나 양적인 측면의 제품생산에서 쉽게 대체화 진행가능

《 수입대체화 이후 러시아 유제품 시장의 변화 》

- 2014년 유럽연합 및 미국 산 유제품 수입금지로 러시아 자국산 유제품 생산확대 및 호황기조
 - 서구산 유제품 수입이 금지되면서 러시아 국내기업의 원유생산이 20-30% 가량 확대되는 등 러시아 국내기업의 수혜확대
 - * 서구산 수입이 금지되면서 벨라루스산 유제품 수입증가
 - 러시아 최대 농업기업중 하나인 쿠반社(Kuban agroholding)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2015년 원유생산량을 전년대비 20% 증산하고 있으나 국내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
 - 러시아 정부의 유제품 산업 육성정책 지속
 - 러시아 정부는 2016년에도 약 4억 4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약 74-75%인 우유생산 자급율을 2020년까지 90%로 올린다는 계획
 - * 2014년 기준 원유제품의 수입대체율은 약 6%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
 - 다만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, 수요가 대체재로 전환되고 있으며 러시아산 유제품 품질이 서방의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 상존
-
- 수입대체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는 충분한 검토와 전략 수립필요
 - 식품가공·비철금속·경공업 등 비교적 빠른 속도의 수입대체화가 일어나고 있는 산업은 러시아 현지의 해당산업 내 경쟁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필요
 - * 러시아 현지의 경쟁자나 대체재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있는 경우 정부정책상 현지의 다양한 수요처 발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상존
 - 러시아 현지기업이 부재하거나 틈새시장 진출이 가능한 경우 현지의 시장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 모색가능

-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식품가공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가 절실하나 현지 경쟁기업이 적은 경우 투자를 긍정적으로 고려 필요
- 수입대체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산업 분야의 경우 해당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투자를 시행하고 현지화를 통한 시장진출 가능
- 고도의 산업화와 장기적 기술전이가 필요한 산업분야는 단기간에 수입대체화가 불가능하며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시장 점유가 가능한 영역
- 해당 분야의 현지 투자는 러시아 정부 및 기관 등의 공공수요를 흡수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시장 확보가 중요
 - *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 합작기업의 현지 지역 유통망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제품 판매에 있어 합작의 효과 극대화 가능
- 의료·제약, 기계제작, IT·전자 등의 분야는 러시아 내수시장 점유를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확대 필요

□ 수입대체화 규제 회피를 위한 ‘현지화 전략(localization strategy)’의 단계

- (1단계) 수입대체화 규제회피를 위한 생산의 현지화
- 산업별 수입대체화의 진행 속도에 따라 생산의 현지화를 통한 수입관세회피와 완제품 수입규제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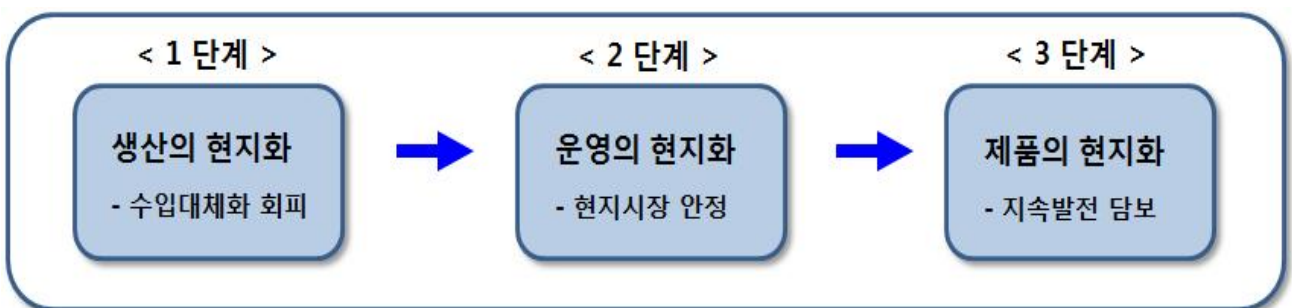
* 일반적으로 생산의 현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출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비용 절감이 주요 목적이며 한국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건설하여,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음.

- 러시아 시장에서의 초기 생산현지화는 러시아 정부의 ‘현지화(localization)’ 규정에 따른 자국산 생산제품 인정기준을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

- 러시아의 고임금으로 인해 생산의 현지화를 통한 저가 범용상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통한 러시아 내수시장 확보 가능성 여부가 현지화 성공여부의 중요한 관건
- 다만, 러시아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부품 등의 현지조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.
 - * 일정 수준이상의 부품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현지에서의 대체화 비중이 인정되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이 가능
- 러시아 현지에서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현지화가 일정수준 이상 진행된다면 현지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작업 필요
- (2단계) 현지시장 안정을 위한 운영의 현지화
 - 러시아 수입대체화 대응을 위한 생산위주의 현지화가 1단계 전략이라면, 2단계 현지화 전략은 현지 운영 및 관리 현지화를 통한 현지기업화 추진이 목적
 - 생산 현지화 단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판매가 안정화 되면 운영의 현지화를 통한 생산비용 등 원가절감을 통해 장기적 성장의 기반구축 필요
 - 러시아 시장에서 운영의 현지화는 러시아인을 현지 주요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진으로 채용하여 현지 사업 환경과 문화에 기업운영이 접목되어 이를 통한 현지시장 안정화가 지속되도록 노력
 - * 경영진이 현지화 되면 현지시장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조직문화 형성이 가능
 -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, 대체로 경영진에 러시아인을 등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러시아 시장이 성숙화 됨에 따라 향후 현지인 활용이 중요과제
- (3단계) 지속발전을 위한 제품의 현지화

- 제품의 현지화는 러시아 시장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로 러시아 소비자에 맞춤형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
 -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기업생존을 위협받게 됨.
 - 초기 진출 단계에서 수입대체화를 회피하기 위한 생산의 현지화와 현지시장 안정을 위한 운영의 현지화를 달성하였다면 제품의 현지화는 러시아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건
 - 제품의 현지화 단계에서 기업이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는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 전체를 제품 현지화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임.
- * EEU를 통해 가입국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제품의 현지화 필요

< 그림 9 > 러시아 현지화 전략 단계



□ 제조업 투자를 통한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 진출 고려 필요

- EEU 출범에 따른 가입국간 무관세 교역이 시행 중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EEU 가입국에 대한 시장진출 가능

* 2016.8 현재 EEU 가입국은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키르기스스탄의 5개국이며 향후 타지키스탄의 가입이 가시화

- 러시아에 대한 제조업 관련 투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‘Hub

and Spoke'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.

- 동 전략은 '허브(hub)' 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투자·생산·판매가 집중된 뒤, 이후 '개별지점(spoke)' 인 EEU 가입국을 연계하는 전략⁸⁾
- 현지생산 추진 기업은 러시아를 우선적인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러시아의 수입대체화를 통한 수입장벽을 회피하고 EEU로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 구사 가능
- EEU 가입국 간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·문화적 공통분모가 존재하여 제품 현지화를 통한 공동의 시장 창출 가능
 - EEU 가입국은 과거 수십 년간의 사회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으로 공통요소가 많아 제품 현지화를 통한 시장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
 - * 1917년 소비에트화 이후 EEU 가입국은 1991년 소비에트 해체까지 연방으로 구성
 - 2000년대 이후에는 러시아로의 노동이주를 통해 러시아와 각 국가 간의 시장 동조화 강화
 - * 키르기스스탄, 아르메니아 등은 노동인구의 상당 비율이 러시아로 이주하여 자국으로 송금을 하는 송금의존 경제구조 고착
 - EEU 공동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시장 동조화는 제품현지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단일시장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러시아 중심의 제조업 투자 개연성 증대

8) 해당 전략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할 것. 박지원, “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·통상 대응전략,” *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5-003*, September, 2015, pp. 1-63.

< 참고 문헌 >

- 문헌 자료 -

- 박지원. (2015) “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·통상 대응전략.” KOTRA, *Global Strategy Report 15-003*
- 신현수 외. (2010) 『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환경 변화와 수출확대 방안』.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-568.
- 한홍렬 외. (2015) *유라시아 산업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*.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- Evenett, S. J. and Fritz, J. (2015) “The Tide Turns? Trade, Protectionism, and Slowing Global Growth.” The 18th Global Trade Alert Report, CEPR Press.
- Hann, C., and McDonald, B. (2011) “Protectionist Response to the Crisis: Damage Observed in Product-Level Trade.” IMF Working Paper WP/11/139.
- Kaempfer, W. H., Tower, E., and Willet, T. D. (2002) “Trade Protectionism: For the Encyclopedia of Public Choice.” Working Paper 02-20, Duke University.
- McKibbin, W. J. and Stoeckel, A. (2009) “The Potential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World Trade.” Brookings Institute.
- Reinhart, C. M., and Rogoff, K. S. (2008) “This Time is Different: A Panoramic View of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Crises.” NBER Working Paper 13882.
- WTO. (2015) press release, PRESS/739, Apr. 2015.
- WTO. (2015) World Trade Report 2015.

러시아 산업통상부, Доклад о целях и задачах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

- 인터넷 자료 -

- Central Bank of Russia
- Eurostat, news release euro indicators 116/2016, June, 2016.
- KOTRA, Global Window
- The World Bank, Tariff rate, applied, simple mean, all products
- Foreign Trade Analytical Center, Import Substitution. State Support Measures

작성자

◆ 글로벌전략지원단 박지원 전문위원

Global Strategy Report 16-008

신(新)보호주의 국제환경과 러시아 수입대체화 전략

발 행 인 | 김재홍
발 행 처 | KOTRA
발 행 일 | 2016년 8월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06792)
전 화 | 02) 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ISBN : 979-11-87219-25-5 (93320)

Copyright © 2016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

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